

쌍용차, 완성차 업계 첫 임금협상 타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 합의안 가결, 투표인 대비 63.81% 찬성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사장 이유일·www.smotor.com)는 지난 18일 '201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데 이어 19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3.81%가 가결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부터 각 공장 별로 실시된 투표는 총 조합원 2,799명 중 2,672(95.46%)이 참여해 1,705명(63.81%)이 찬성하는 등 높은 찬성율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번 2011년 임금협상은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7만 1천

원 인상(통상급의 3.6%수준), 별도 안전으로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장학회 설립 ▲전 직원 단체개인 연금보험 가입 건 등이 모두 확정됐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임·단협을 회사에 일임한 데 이어 올해 역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완성차업계 첫 임금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게 된 것은 노사관계 대전환을 통해 이룩한 성과이자 자동차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신노사 관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회사 정상화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러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굳건히 다져 글로벌 기업을 향한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마힌드라와의 시너지 창출 등 조기 경영정상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노사는 임금협상 타결과 함께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창조를 위한 『클린 쌍용확약문』을 채택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클린 쌍용 확약문』의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청탁 및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 ▲절차와 기준을 준수한다 ▲노사의 공식 조직을 활성화하고 육성한다 ▲회사규범 및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등이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은 "임금협상의 조기 타결은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위한 임직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며 "선진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노사 상생이 우선시 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성장위해 고용·임금 유연성 필요'

자랑 세미나개최...독일, 일본, 미국 등은 파견 근로 허용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권영수)는 지난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전제조건으로 자동차회사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고, 국가는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하여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법과건으로 판결함으로써 자동차 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주었

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정쟁과 해결방안"에서 도급과 과건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첫째, 과건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과성과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고, 국가는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조업에 대해서도 과건을 허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급과 과건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위장도급과 불법과건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경직된 노동법제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정리해고의 요건은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법리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포니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형준 경총 본부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 윤기철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자동차산업의 지속 성장과 노동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현대차그룹, 제11회 미래차 기술공모전 참가자 모집



사진은 2010년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에 참가한 대학(원)생 및 자율주행자동차.

현대자동차그룹은 대학(원)생 대상 '제11회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부제: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1일(화)까지 모집한다.

국내에선 유일하게 대학(원)생들이 직접 자동차의 실물을 제작해 겨루는 '미래 자동차 기술공모전'은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접 자동차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한편, 자동차산업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워 널리 알리기 위해 1995년부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10년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에서 완성차 업계 세계 최초로 '자율 주행

자동차 연구경진대회(AVC, Autonomous Vehicle Competition)'라는 연구테마로 실제 차량을 제작하는 방식에 도입했고, 올해는 한층 난이도가 높아진 이동 장애물, 교차로 등의 코스를 주행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자율 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센서, 카메라와 같은 '장애물 인식 장치'와 GPS 모듈과 같은 '자동 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조향, 변속, 가속, 브레이크를 도로환경에 맞춰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향후 위험 회피 기능이나, 능동적 주행 보조 등 첨단 안전/주행 장치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차량 기반의 '자율 주행 자동차'를 직접 제작해 포장 및 비포장 도로로 혼합된 4km의 주행 코스에서 ▲서행차량 회피, ▲돌발 장애물 회피, ▲교차로 신호등 인지, ▲정차 구역 인지 등 총 9개의 미션을 수행하고 가장 빠르게 완주하는 것을 겨룬다. 약 10팀에게 주어지는 본선 티켓은 1차 발표심사와 2차 주행심사의 두 차례 예선을 거쳐 주인을 가리며, 차량제작은 올해 7월부터 내년 하반기 본선대회까지 진행된다.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은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과 첨단 자동차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대학별 관련 연구실을 중심으로 팀 단위

의 과제 수행이 이뤄질 예정이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참가팀들이 기술 분야별 자문 연구원과 함께 연구 개발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용 차량 및 연구비(최대 9,000만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본선대회 우승팀(1팀)은 상금 1억 원, 2등팀(1팀)은 상금 5천만 원, 3등팀(1팀)은 3천만 원 등, 총 2억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http://www.hyundai-ngv.com>)에 개설된 '미래자동차 기술공모전' 코너에서 응모할 수 있다.

『제네시스 프라다』1호차 주인공 차인표, 신애라 부부

VIP 고객등에 1,200대 한정판매



양승석현대차차사(사진 왼쪽)이 배우 차인표씨(오른쪽)에게 '제네시스 프라다' 1호차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고품격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 프라다'는 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선택했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지난 18일 서울 청담동 '비온드 뮤지엄' 전시관에서 『제네시스 프라다 VIP 신차발표회』를 실시하고 1호차 주인공으로 차인표, 신애라 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승석 현대차 사장을 비롯한

제네시스 프라다'를 필두로 고급차에 대한 현대차의 새로운 생각을 통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네시스 프라다' 1호차를 전달받은 차인표씨 부부는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한편 국제 양육기구를 통해 지금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아이들을 후원하며 기부와 나눔을 실천에 옮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연예계 대표 선행부부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톱스타 부부와 '제네시스 프라다'의 타겟 고객 이미지가 잘 어울려 차인표씨 부부를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며, "향후 '제네시스 프라다'를 구매하는 VIP고객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가 올해 초 새롭게 발표한 브랜드 슬로건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감성 가치를 제공코자 세계적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개발한 '고품격 프리미엄 세단'으로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국내에 1,200대만을 한정 생산 및 판매할 계획이다.

젊음을 즐겨라! '아베오 펀펀(FUN FUN) 페스티벌'

주말 명동 일대 이색 거리 축제, 아베오 디제이 파티 열어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가 소형차 웨보레 아베오 모델 출시를 기념해 열정적인 젊음을 주제로 한 이색 이벤트를 연달아 펼치고 있어 화제.

젊음을 상징하는 명동 거리 이벤트와 대학 캠퍼스 축제 파티가 그것으로, 한국지엠은 이색 이벤트를 통해 아베오의 주요 고객층인 20, 30대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개최한 것. '아베오 펀펀(FUN FUN) 페스티벌'은 5월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찾아가는 아베오 캠퍼스 파티, 아베오 파티의 첫 무대는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열린 한양대학교의 축제 장소. 한국지엠은 DJ Punkin 등 유명 디제이를 초청해 축제기간 내 캠퍼스를 디제이 파티장으로 꾸몄다. 뿐만 아니라 개성파



한양대에서 열린 아베오 디제이 파티. 열정적 넘치는 대학 축제 무대에 어울리는 차량 전시 및 아베오 캠페인을 제공,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명동에서는 거리 디제이 공연을 펼치는 '아베오 펀펀(FUN FUN) 페스티벌' 거리 이벤트가 열린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명동 눈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는 서울모터쇼에 선보여 눈길을 끌었던 아베오 디제이 카(DJ

car)가 전시되고, 매일 저녁 유명 힙합 그룹 슈프리팀(Supreme team) 전속 디제이인 DJ Freekey와 함께 하는 디제이 파티가 열린다.

한편, '아베오 펀펀(FUN FUN)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한국지엠은 5월부터 별도의 프로모션 종료 시까지 행사 기간중 아베오 구입 고객이 웨보레 오토카드(웨보레 삼성카드, 웨보레 롯데카드)를 이용해 S-oil 또는 SK 주유소에서 주유 시 차량 구입 다음 달부터 5개월 간 매일 80리터까지 리터당 1,000원의 주유비를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개발을 주도한 글로벌 소형차 아베오는 유럽을 포함,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소형차. 아베오는 스포티하고 실용적인 5도어 해치백 모델과 세련된 폼을 한층 더 가치한 세단형 모델로 구성되며,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함께 감각적인 디자인, 나아가 편의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요타, 맨스챌린지 2011 개최

최종 우승자에게는 월드 베스트 셀링 모델인 코롤라 제공

토요타 브랜드는 한국피앤지(P&G)와 함께 오는 7월 16일(토) 최고의 남성을 선발하는 '맨스챌린지 2011' 드라이빙 스쿨을 개최한다.

이번 '맨스챌린지 2011'은 안전운전의 기본 요령에 대한 이론 교육과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하는 슬라럼, 핸들링, 더블 레인 체인지 등의 실전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실전 서킷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참가자에게는 월드 베스트 셀링 모델인 코롤라를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6월 30일(목)까지 '맨스챌린지 2011' 공식 홈페이지(www.menschallenge.co.kr)를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최고가 되기 위한 남자의 도전을 주제로 글을 올린 고객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10명을 선정하



여 아이패드와 함께 '맨스챌린지 2011'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나카바야시 히사오 사장은 "스타일과 안정성이 뛰어난 '토탈 밸런스'를 갖춘 코롤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토요타 브랜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